

##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의미패턴 연구

### A Study on Visual Semantic Patterns Appeared in Cover Design of Growth Novels

주 저 자 : 박혜원 (Park, Hye Wo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융합 전공

교 신 저 자 : 엄기준 (Um, Ki Ju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umkj@hyc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3.3.236>

---

접수일 2023. 8. 25. / 심사완료일 2023. 9. 3. / 게재확정일 2023. 9. 9. / 게재일 2023. 9. 30.

## Abstract

As Korea grew after liberation, social and cultural changes occurred and were reflected in the content and cover design of coming-of-age novels. In a situation where Korea's bildungsroman is also changing and developing, we found that research on cover design for this was very insufficient, and attempted to study the characteristic semantic system of the cover design of Korean bildungsroman by era. The research method targets the cover designs of 166 coming-of-age novels published from the 1970s to 2023. First, the meaning of keywords and titles by era of the content of the coming-of-age novels is analyzed, and second, the meaning of the cover design of the coming-of-age novels is visualized. Analyze it by dividing it into images, colors, and typography, and check the flow and patterns of change by era. Thir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and visual elements by era in the content of coming-of-age novels.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firstly, the composition of the parts of speech in the title by era appeared to be diversifying and becoming more complex, from 1 type of 'noun' structure in the 1970s to 17 types of parts of speech in the 2020s. Second, in terms of images, the oil painting technique of illustrations was used the most, and as the 2000s progressed, the frequency of using the entire cover as an image increased, and the use of stripes also gradually expanded. In terms of color, in the 1970s the hue distribution was medium brightness and low saturation, in the 1990s it was a hue distribution of wide brightness and saturation with warm colors and neutral colors, and in the 2020s the hue distribution was again centered on neutral colors and cool colors with medium brightness and low saturation. appear. In terms of typography, horizontal writing, center alignment, single line, serif, asymmetrical layout, and color changes were used to emphasize headings. Third, the concreteness and abstractness of titles and images were analyzed. In the 1970s, abstract expressions were very high, and concrete expressions were used more in the 2000s. In terms of visualization of the title, the average matching rate was 63%,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specificity of the title affects image visualization. In general, keyword visualization was relatively high in the 1970s, but the matching rate gradually decreased thereafter.

## Keyword

Coming of age novel(성장소설), System of meaning(의미체계), Visual factor(시각요소)

---

## 요약

해방 후 한국이 성장해나가면서 사회문화적 변화가 나타났고 성장소설을 이루고 있는 내용과 표지디자인에도 반영되었다. 한국의 성장소설 또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표지디자인 연구가 매우 미비한 것을 발견하였고, 한국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인의 연대별 특성 의미체계를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출판된 166편의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성장소설의 내용의 연대별 키워드와 제목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둘째,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인의 의미시각화를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연대별 변화의 흐름과 패턴을 확인한다. 셋째, 성장소설의 내용의 연대별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연대별로 제목의 품사의 구성이 1970년대 '명사구조 1종'에서 2020년대에서는 17종이 이르는 품사 구성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로는 이미지측면에서 일러스트의 유채화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2000년대로 갈수록 표지면 전체를 이미지로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띠지의 사용도 점차 확대되었다. 색채측면에서는 1970년대에 중명도 저채도의 색조분포에서 1990년대에 난색과 중성색으로 넓은 명도와 채도의 색조분포를 이루다가 2020년대에는 다시 중명도 저채도로 중성색과 한색 위주의 색조분포가 나타났다. 타이포그래피측면에서는 가로쓰기와 중앙정렬, 1줄, 세리프, 비대칭 레이아웃, 컬러의 변화로 표제강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로는 제목과 이미지의 구체성과 추상성과 분석하였는데, 1970년대에는 추상적 표현이 매우 높았고 2000년대로 갈수록 구체성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제목의 시각화측면에서 평균적으로 63%의 매칭률로 나타났으며 제목의 구체성 표현에 따라 이미지 시각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의 시각화는 대체적으로 1970년대에는 비교적 높았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낮은 매칭률을 보였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이론적 배경

- 2-1. 성장소설의 개념
- 2-2. 표지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
- 2-3. 선행연구 분석

### 3. 성장소설 표지의 의미 분석

- 3-1. 표지의 연대별 의미 분석

### 3-2. 분석 소결

### 4. 표지의 연대별 의미 시각화 분석

- 4-1. 이미지 패턴 변화 분석
- 4-2. 색채 패턴 변화 분석
- 4-3. 타이포그래피 패턴 변화 분석
- 4-4. 분석 소결

### 5. 연대별 의미체계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 6. 결론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 후 한국이 성장해나가면서 사회·문화적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성장소설을 이루고 있는 내용과 표지디자인에 각 시대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성장소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랑의 체험이나 죽음을 인식하고, 삶의 여정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부모님의 부재나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 부조리한 사회악을 체험하며 겪는 고통 등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한 것이 성장소설의 주된 내용이다.<sup>1)</sup> 한국 성장소설은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성장소설은 꾸준히 출판되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정신적·사회적 성장을 돕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소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반해서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의 역사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도 성장소설의 개념 통일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 성장소설의 발달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쳐 향후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소설’이라 명명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인이 성장의 키워드를 어떻게 시각화하였는지, 표지의 시각요소와 의미체계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시대별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여 앞으로 미래의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글 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베스트셀러의 기준도 수천부에서 5만부 선으로 올라갔다. 1980년대에는 출판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100만 부를 넘어서는 베스트셀러, 이렇그대로 밀리언 셀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출판계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야 베스트셀러가 나타났기 때문에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약 50여년 동안 출판된 성장소설 166편의 책표지디자인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2023년 9월에 작성한 연구여서 상대적으로 다른 해에 비교해서 2023년에 출판된 성장소설은 수량이 적게 수집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성장소설의 내용의 연대별 키워드와 제목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성장소

1) 백경아, 한국 현대성 장소설에 나타난 모티브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8.

설의 표지디자인의 의미시각화를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연대별 변화의 흐름과 패턴을 확인한다. 셋째, 성장소설의 연대별 키워드와 시각 요소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성장소설의 연대별 작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1970년대(1970~1979년) 작품 목록(총 5편)**

연도	작품목록
1970년대	작품목록
1973년	김원일, 《아들의 혼》외 2편
1978년	김원일, 《노을》
1978년	이동하, 《장난감 도시》

**[표 2] 1980년대(1980~1989년) 작품 목록(총 5편)**

연도	작품목록
1980년대	작품목록
1980년	이문열, 《그해 겨울》
1981년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1984년	J. M. 바스콘셀로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1986년	황순원, 《소나기》

**[표 3] 1990년대(1990~1999년) 작품 목록(총 9편)**

연도	작품목록
1990년대	작품목록
1990년	장정일, 《아담이 눈둘 때》 외 1편
1992년	하퍼 리, 《앵무새 죽이기》 외 1편
1996년	은희경, 《새의 선물》 외 1편
1998년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외 1편
1999년	현기영, 《지상에 순가락 하나》

**[표 4] 2000년대(2000~2009년) 작품 목록(총 32편)**

연도	작품목록
2000년대	작품목록
2000년	안도현, 《짜장면》
2002년	김중미, 《앵이부리말 아이들》 외 6편
2003년	베치 바이어스, 《열네살의 여름》 외 1편
2004년	박상률, 《봄바람》 외 1편
2005년	신시아 리얼런드, 《그리운 메이 아줌마》 외 2편
2006년	정채봉, 《초승달과 밤배》외 2편
2007년	정유정,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외 3편
2008년	이금이, 《유진과 유진》 외 5편
2009년	김혜정, 《닌자 걸스》 외 3편

**[표 5] 2010년대(2010~2019년) 작품 목록(총 62편)**

연도	작품목록
2010년대	작품목록
2010년	조재철, 《다리》 외 7편
2011년	박수현, 《열여덟 너의 존재감》
2012년	고정욱, 《까칠한 재석이 사라졌다》 외 9편
2013년	변경섭, 《종태》 외 7편
2014년	강숙인, 《나에게 속삭여봐》 외 5편
2015년	A.J.크로닌, 《고독과 순결의 노래》 외 4편
2016년	이은용, 《그 여름의 크리스마스》 외 3편
2017년	손원평, 《아몬드》 외 2편
2018년	박하령, 《1인분의 사랑》 외 6편
2019년	안드레 애치먼, 《그해, 여름 손님》 외 9편

**[표 6] 2020년대(2020~2023년) 작품 목록(총 53편)**

연도	작품목록
2020년대	작품목록
2020년	박영란, 《게스트하우스 Q》 외 11편
2021년	이금이, 《너도 하늘말나리아》 외 9편
2022년	이서윤, 《내꿈은 선생님》 외 20편
2023년	강석희, 《꼬리와 파도》 외 9편

## 2. 이론적 배경

### 2-1. 성장소설의 개념

성장소설은 교양소설(Bildungsroman), 형성소설(Novel of Fomation), 입사소설(Initiation novel), 보존소설(Perservation novel), 그리고 발전소설(Entwicklungsroman) 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어린 주인공이 자아를 의식하고 차츰 외부 세계와의 접촉 또는 대결을 하는 중에 그의 자아가 인간세상의 삶의 법칙을 깨우쳐 세계 속에서 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성장소설은 변별적으로 인식되는 다른 소설 유형들과 서로 공유하는 성격을 담아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 나름의 고유한 서사적 유형을 간직하고 있다. 성장소설만의 서사적 유형이란 바로 주인공의 변화 양상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히,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적 특질을 의미한다.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구조화된 유형적 특질을 가진 서사양식이 성장소설이다.<sup>2)</sup> 성장소설은 ‘성장’이라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한번이상은 거치는 과업을 주제로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2)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작품들이다.<sup>3)</sup> '성장'이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이기는 하나 그것이 인생의 한 시기에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소설을 곧 성장소설이라 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문학, 가령 박완서의 노년을 다룬 소설에도 노년기를 겪는 인간의 또 다른 성숙의 과정이 담겨 있다.<sup>4)</sup>

## 2-2. 표지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

표지디자인이란 제본 단계가 끝나 완성된 책을 보호하고 책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호소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이고, 표지의 미적 기능 또는 본문과의 통일된 이미지 전달을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의 개념을 가진다. 표지디자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서적을 보호하는 포장물로서 역할을 했으나 산업혁명 이후 인쇄 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서적이 출판 상품으로 큰 위치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내용을 강조하는 단계에 앞서 표지의 미적 기능, 광고적 기능, 포장적 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표지디자인은 보호 기능과 장식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래픽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sup>5)</sup>

표지디자인의 구성요소는 크게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로 나눌 수 있다. 이미지 부분에는 비주얼 이미지나 그래픽 요소들이 해당되고, 타이포그래피 부분에는 제목, 저자명, 출판사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목은 책표지에서 눈이 가장 먼저 닿는 곳으로 표지 구성요소 중 일러스트나 사진, 그래픽 요소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2-3. 선행연구 분석

이미 패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노옥영의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포스터에 나타난 의미 패턴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 포스터에 나타나는 의미와 시각화에 대한 연구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40년간의 기획 전시 포스터를 분석해 의미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와 시각화의 과정을 참고하였고, 차이점이라면 기호학적 의미를 다루지 않고 책표지의 제목과 내용상의 의미체계를 분석하고 의미체계와 의미시각화의 연관성을 분석한 데에 있다. 시각적 요

3)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241.

4) 선주원, 청소년 문학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2008, p.22.

5) 박희정, 사회변천에 따른 표지디자인의 형태 분석-문학서적을 중심으로, 1995, p.4~10.

소 특징에 관한 연구로는 송민정·최은유의 「분야별 책 표지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 분석을 통한 시각적 특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과 에세이, 아동 분야에서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 색채 등을 비교 분석을 확인하였다. 김정현의 「국내의 북커버 디자인의 시각적 특성 비교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소설 분야 10개, 국외 소설 10개, 해외 소설분야 10개의 도서를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 컬러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미정의 「베스트셀러 소설 제목의 타이포그래피 조형성 연구」에서는 총 59권의 소설의 서체, 굵기, 색, 크기, 위치, 정렬 등을 분석하였고 제목 타이포그래피의 경향과 흐름을 확인하였다. 시대적 배경과 서적 표지디자인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로는 박희정의 「사회변천에 따른 표지디자인의 조형 분석 - 문학서적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지디자인의 개념과 서적의 변천과정 및 1945년부터 1993년까지의 표지디자인의 조형분석을 확인하였다. 성장소설의 선행연구로는 백경아의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모티브 분석」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소설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 모티브의 특성을 발견하였고, 성장모티브의 양상을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성장소설 표지의 의미 분석

### 3-1. 표지의 연대별 의미 분석

[표 7] 1970년대 의미 분석

1970년대		키워드	
내용의 키워드		아버지, 빨치산, 비극, 가족사, 일제강점기, 최첨판덕, 분단, 토착적인 한(恨), 경제성, 도시, 상처, 치유	
제목의 키워드	구체성	사물	장난감
		배경	도시
	추상성	빛	어둠, 노을
		날씨	장마
		정신적	혼, 토지
품사 구성	명사	《어둠의 혼》, 《토지》, 《장마》, 《노을》, 《장난감 도시》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추출되는 키워드는 각 연대별 표에서 볼드체로 굵게 표현하였다. 1970년대에는 전쟁을 겪고, 이념에 대한 갈등이 매우 심하던 시기여서 성장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추출된 키워드도 '아버지', '비극', '분단', '토착적인 한(恨)' 등이 나타난다. 이 시기 제목의 품사는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김원일의 《노을》 작품에서 '노을'은 아버지가 억지로 마시게 했던 '소의 피'와 좌익폭동으로 인한

‘피범벅’, 엄마의 ‘피멍’ 자국을 의미하며 제목을 추상성으로 표현하였다.

**[표 8] 1980년대 의미 분석**

1980년대		키워드	
내용의 키워드		현대, 나무친구, 아저씨, 절망, 지식, <b>삶의 의미</b> , 방향, 무력감, <b>청춘</b> , 순수, <b>사랑</b> , 수채화, 결핵, 삶과 죽음, 봉사	
제목의 키워드	구체성	사물	리임오렌지나무, 산
		계절	겨울
	추상성	상태	젊은 날
		날씨	소나기
모습	초상		
정신적	마(魔)		
품사 구성	대명사+명사	《나의 리임오렌지나무》	
	명사	《그해 겨울》, 《젊은 날의 초상》, 《소나기》, 《마의 산》	

1980년대 성장소설의 키워드로 ‘삶의 의미’, ‘방향’, ‘청춘’, ‘사랑’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제목의 품사에서 대명사 ‘나의’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1986년 황순원의 《소나기》에서는 풋풋하고 순수한 수채화같은 사랑의 체험을 담았는데, 제목은 내용을 함축적 표현하여 추상성을 띄고 있다.

**[표 9] 1990년대 의미 분석**

1990년대		키워드		
내용의 키워드		성의 사회화, 인종차별, 모함, <b>부조리함</b> , 기행문, <b>희상</b> , 시선, 상처, 환멸, 가면, 죽음, 애정, 별, 학급, <b>지배</b> , 권력, 아버지, 전쟁, <b>폭력</b> , 제주, 비극, 역설적 아름다움		
제목의 키워드	구체성	숫자	하나	
		사물	선물, 별, 숟가락	
		동물	앵무새, 새	
		식물	꽃	
		배경	뜰, 지상에	
	추상성	사람	아담, 영웅	
		행동	숨은, 죽이기	
		상태	어린날, 자화상, 유년의, 일그러진	
		대명사+형용사+명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고유명사+명사+동사	《아담이 눈뜰 때》	
명사	《새의 선물》, 《별》, 《유년의 뜰》, 《어린날의 자화상》			
형용사+명사	《숨은 꽃》			
명사+동사	《앵무새 죽이기》			
명사+수사	《지상에 숟가락 하나》			

1990년대 성장소설은 ‘폭력’, ‘지배’, ‘부조리함’, ‘희

상’ 등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제목의 품사도 대명사와 형용사, 동사, 수사 등을 활용하여 이전 연대와 비교했을 때 제목의 구체성이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2000년대 의미 분석**

2000년대		키워드		
내용의 키워드		희상, <b>꿈</b> , 시각, 공감, <b>불안</b> , 나약함, 낙제, <b>경험</b> , 열망, 성폭력, 내면세계, 사춘기, <b>여성</b> , 고통, 낯선, 여행, 풋풋한, 정체성, 달리기, 목표, 상실, 극복, 방향, 모험, 도전, 분노, 문제의식, 자유, 개혁, 화해		
제목의 키워드	구체성	사람	도둑, 파수꾼, 연금술사, 중국인, 아씨들 외 3개	
		숫자	아홉 살, 열네살	
		계절	여름, 봄, 스프링, 밤	
		사물	자전거, 흰종이, 수영, 선물,	
		식물	느티나무	
		상황	캠프, 위험한	
		행동	달려라	
		운동	스쿼시	
		추상성	음식	짜장면
			우주	개밥바라기 별, 초승달
			배경	괘이부리말, 호밀밭, 거리, 리버
		정신적	인생	
	품사 구성	대명사+명사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고유명사		《소공녀》, 《완득이》, 《개밥바라기 별》 외 1개		
고유명사+명사		《괘이부리말 아이들》, 《지로 이야기》		
형용사+고유명사		《그리운 메이아줌마》, 《작은 아씨들》		
명사		《짜장면》, 《자전거 도둑》, 《봄바람》 외 6개		
형용사+명사		《젊은 느티나무》, 《위험한 마음》		
명사+동사+명사		《마음을 키우는 성장소설》		
동사		《뺨떨어질테다》		
동사+명사	《달려라 모터사이클》			
수사+명사	《아홉 살 인생》			
부사+형용사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2000년대에는 성장소설의 출판이 대폭 늘어나는 시기이다. 키워드는 ‘여성’, ‘꿈’, ‘경험’, ‘불안’ 등으로 추출되며, 제목의 품사의 구성도 이전에는 없었던 고유명사(김려령의 《완득이》), 동사(시나기와 히의 《뺨떨어질테다》), 부사+형용사(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성장소설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가족’, ‘상처’, ‘희망’ ‘관계’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손원평의 《아몬드》는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내용을 추상적 제목으로 표현하였고 황영미의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에

서는 타인과의 ‘관계’와 ‘시선’에 대한 어려움을 용기나 어 극복하는 내용을 구체성을 띤 제목으로 표현하였다. 품사의 구성으로는 ‘명사’,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제목이 가장 많았고, 형용사+고유명사(나윤아의 《안녕, 나나》)로 이루어진 제목이 나타났다. 또한 ‘수사가 다양한 구성으로 조합되어 제목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2010년대 의미 분석

2010년대	키워드	
내용의 키워드	추억, 긍정, 모성적, 우정, 성장통, 상처, 루저, 사랑, 봉사, 변화, 탄광촌, 역경, 결핍, 가족, 그리움, 차별, 소외, 동성애, 애증, 로맨스, 신비, 희망, 감정불능, 용기, 관계, 응원, 보청기, 기회	
제목의 키워드	구체성	사람 엄마딸, 손님, 놈, 소년, 가족, 언니 외 5개
	숫자	1인분, 옥토버, 열여덟, 열네살
	우주	프록시마 켄타우리, 달
	계절	겨울, 여름, 크리스마스
	사물	선물, 말뚝, 연
	동물	호랑이, 물고기
	신체	이가미, 눈
	음식	라면, 아이스크림, 치즈
	행동	산책, 심부름, 노래
	운동	픽(아이스하키), 복서
	추상성	식물 느티나무, 숲, 나무, 아몬드
	배경	항구, 구덩이, 나라, 다리, 천국
	상태	슬픔, 사랑, 비밀, 기쁨의, 수상한
	정신적	고독, 순결, 순경, 타로, 진리
품사 구성	고유명사	뽕떡, 종태, 빌리 엘리어트, 제리
	고유명사+명사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지아의 느티나무
	명사	《겨울 산책》, 《픽》, 《항구의 사랑》, 《그해 여름 손님》, 《아가미》, 《아몬드》 외 17개
	명사+고유명사	《순정복사 이관숙》
	명사+대명사+동사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형용사+명사	《울경하고 존독한 두려움》
	형용사+명사+동사	《수상한 고물상, 행복을 팝니다》
	형용사+고유명사	《안녕, 나나》
	명사+동사	《라면 먹고 힘내》, 《편의점 가는 기분》 외 3개
	명사+동사+명사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연을 쫓는 아이》 외 1개
	명사+관형사+명사	《자기 앞의 생》
	명사+동사+관형사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수사+명사	《1인분의 사랑》
수사+대명사+명사	《열여덟 너의 존재》	
수사+형용사	《열네살이 어때서?》	

[표 11] 2020년대 의미 분석

2020년대	키워드	
내용의 키워드	자전거, 안전지대, 선택, 후회, 용기, 평등, 초콜릿, 바이러스, 평등, 특권, 차별, 상실, 결손가정, 경쟁, 평균, 멸망, 홍수, 기후위기, 재난, 경고, 학교폭력, 감염, 사회문제,	
제목의 키워드	구체성	사람 소년, 선생님, 아이, 빼에로
	숫자	열두살의, 스무살,
	우주	우주, 시간
	음식	초콜릿, 주스
	행동	꿈꾼다, 연대, 지켜야 하는,
	장소	게스트하우스, 학원, 학교, 주택
	운동	러닝 하이, 다이브, 스피드
	음식	라면, 아이스크림, 치즈
	추상성	날씨 노을, 바람이 불고 있다
	상태	수상한, 반하다, 불량한, 첫사랑
동물	돼지들, 곰	
정신적	평등, 행운	

품사 구성	대명사+형용사	《우리 관찮아》
	대명사+명사	《내꿈은 선생님》, 《너는 하늘말나리아》
	고유명사	《게스트하우스Q》, 《순례주택》
	고유명사+동사	《독고송에게 반하면》
	고유명사+명사	《보통의 노을》
	명사	《돼지들》, 《초콜릿》, 《튜브》
	명사+대명사+동사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명사+형용사+동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형용사+명사	《수상한 친구들》, 《불량한 주스 가게》
	형용사	《연노운》
	명사+동사	《민음에 대하여》, 《얼음이 빛나는 순간》
	명사+동사+명사	《우주를 삼킨 소년》외 3개
	동사	《다이브》
	동사+명사	《지켜야 하는 아이》
	수사+명사	《열두살의 임진왜란》외 1개
부사	《훅훅》	
수사+동사	《N분의 1을 위하여》외 1개	

2020년대 성장소설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경쟁’, ‘용기’, ‘선택’, ‘평등’이 반복적으로 추출되었다. 이 시기 성장소설의 소재도 성 정체성, 바이러스, ‘기후 위기’ 등을 다루는 특징이 있다. 2020년 니나 라쿠르의 《우리 관찮아》, 이진의 《연노운》 등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알아가고, 자신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바이러스’라는 키워드가 성장소설에 반영되었다. 지구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를 반영한 ‘기후 위기’ ‘재난’ 등의 키워드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품사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형용사(이진의 《연노운》), 동사(단요의 《다이브》), 부사(문경민의 《훅훅》) 등 그 자체로 명사없이 단일하게 구성된 제목이 나타났다.

### 3-2. 분석 소결

성장소설 표지의 제목에서 품사 구성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에는 ‘명사’로만 구성되었다면, 1980년대에는 ‘명사와 대명사’로 구성되고, 1990년대에는 ‘명사+명사’ 구성외에 ‘형용사+명사’, ‘명사+동사’, ‘명사+수사’ 등 5가지 구성, 2000년대에는 ‘고유명사’, ‘형용사+고유명사’, ‘부사+형용사’ 등 10가지 구성, 2010년대에는 ‘명사+고유명사’, ‘형용사+고유명사’, ‘수사+형용사’ 등 14가지 구성, 2020년대에는 ‘부사’, ‘형용사’, ‘동사’ 등 15가지 구성에 이르렀다. 제목을 구성하는 품사가 많아지거나, 다양해지는 것은 좀 더 감성적이면서 세분화되고 개성있는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제목의 키워드로 본 구체성과 추상성 분석 측면에서는 연대별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제목의 추상성 키워드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면, 1990년대부터는 표제의 구체성 키워드가 매우 뚜렷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제의 구체성 키워드가 많아진다는 것은, 성장소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타깃층에 정확하게 의미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 성장소설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키워드를 각 연대별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연대별 키워드

분류	키워드
1970년대	‘아버지’, ‘비극’, ‘분단’, ‘토착적인 한(恨)’
1980년대	‘삶의 의미’, ‘방황’, ‘청춘’, ‘사랑’
1990년대	‘폭력’, ‘지배’, ‘부조리함’, ‘희상’
2000년대	‘여성’, ‘꿈’, ‘경험’, ‘불안’
2010년대	‘가족’, ‘상처’, ‘희망’, ‘관계’
2020년대	‘경쟁’, ‘용기’, ‘선택’, ‘평등’

성장소설 내용의 키워드는 소설에 국한된 의미에서 나아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제, 청년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갈등과 고민들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4. 표지의 연대별 의미 시각화 분석

### 4-1. 이미지 패턴 변화 분석

각 시대별로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이너 이미지의 패턴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이미지는 크게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그래픽디자인으로 분류된다. 일러스트레이션

은 약칭으로 일러스트라고도 하며 사전적으로 제3자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 암시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이는 콘셉트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탁월하며 파악하기 힘든 주제일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된다.<sup>6)</sup> 일러스트는 유채화와 수채화, 소묘화와 판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진은 책의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실성이 강하여 보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7)</sup> 사진에서도 인물인지 풍경인지에 따라 분류항목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래픽 디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브제를 합성하고, 따로 떼어 배치하고, 그래픽 효과를 주는 등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때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 13]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미지 분석

분류			1970	1980	1990	
배경 이미지 사용 비율		100%			3	
		70%	1	1	3	
		50%	2	3		
		25%	2	1	3	
배경 이미지 표현 유형	사진	인물		1	2	
		작가	-	-	1	
		모델/이상향		-	-	1
		혼합		1		1
	일러스트	유채화/페인팅		2	2	1
		수채화/번짐		-	-	-
펜화/소묘			1	2	3	
컴퓨터 그래픽	타이포그래피		-	-	1	
	띠지 사용(이미지 없음)		1	-	-	

1970년대에는 초반에는 작은 일러스트로 내용을 표현하였고 점차적으로 표지면의 50% 이상의 비율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성장소설은 표지면의 이미지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지로는 유채화나 소묘적 기법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1973년 성장소설 윤홍길의 『장마』 표지디자이너는 윤홍길 저자로 유추되는 얼굴이 소묘기법을 사용했다. 1979년 성장소설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표지디자이너

6) 조해린, TV광고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08, p.133

7) 이화진, 출판 표지 디자인의 특성화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54

에는 저자 사진과 글자가 쓰여진 원고지 사진을 배경으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 1986년 황순원의 《소나기》에 사용된 유채화는 꽃병과 꽃, 사람의 옆모습, 검정색 영역 안의 달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소들은 소나기의 내용과 일치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3」 1989년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은 병(결핵)을 소재로 하여 죽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유채화로 ‘산’을 그려넣어 추상적 표현을 하였다. 1990년대 성장소설 표지에서는 표지의 전체를 이미지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표 13】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표 표지

분류	대표 표지 이미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윤홍길, 「장마」, 1973	황순원, 「소나기」, 1986	토마스 만, 「마의 산」, 1989	하퍼 리, 「앵무새죽이기」, 1992

「그림 4」 1992년 성장소설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여자아이 스카웃의 시점에서 인종차별을 심도 깊게 다룬 내용으로 표지디자인 전면에 타이포그래피적 그래픽 표현을 하였고, 입을 가린 듯한 여자아이의 모습을 배치하여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 성장소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표지디자인은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제목의 바탕으로 사용된 빨간 피는 ‘학대’, ‘권력’, ‘굴욕’과 ‘지배’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표 14】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대표 표지

분류	대표 표지 이미지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박완서,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 2005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2010	토마스 만, 멜빈 버지스, 「빌리 엘리엇」, 2012	허진희, 「독고슴에게 반하면」, 2020

【표 14】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미지 분석

분류		2000	2010	2020		
배경 이미지 사용 비율	100%	16	33	31		
	70%	7	18	21		
	50%	4	5	1		
	25%	4	6	-		
	없음	1	-	-		
배경 이미지 표현 유형	사진	인물	남매	-	1	
			사람들	-	2	
		풍경	바다	-	-	1
			그네	1	-	-
		집	1	-	-	
	일러스트	유채화/페인팅	20	35	42	
		수채화/번짐	3	3	2	
		동양화/먹 번짐	1	1	-	
		펜화/소묘	1	1	3	
		판화	-	1	-	
컴퓨터 그래픽	오브제 합성	1	5	2		
	그래픽 효과	3	6	2		
	타이포그래피	-	4	-		
	그라데이션	-	1	1		
	콜라주	-	2	-		
	사용하지 않음	1	-	-		
띠지 사용(이미지 없음)		8	13	22		

2000년대에서는 표지면에서 이미지가 100%로 사용된 비율이 전체 32편 중 16편으로 50%를 차지했다. 표지디자인에서는 배경 이미지를 수채화 기법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었으며, 컴퓨터그래픽으로 오브제를 합성하고, 효과를 적용하고, 타이포그래피적 기법을 사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2005년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1931년 개성 근처의 박적골에서의 유년 시절부터 6.25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상황 묘사하여 직접 체험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사실들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표지디자인을 살펴보면, 동양적 화풍으로 싱아를 손에 든 소녀를 표현하였으며 배경에 타이포그래피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2010년대에는 성장소설이 가장 많이 출판되었던 시대로 컴퓨터그래픽이 발달하여 표지디자인 이미지 표현기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림 6」 2010년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 터키인이 상처투성이의 한 아이를 입양해 보듬어 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표지디자인에서는 종이 질감의 바탕으로 터키인인 하산아저씨와 소년, 주변 이웃 사람들의 그림을 붙여넣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으로 약간의 이질감과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2010년대는 다른 시대보다 컴퓨터그래픽 중에서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림 7」 2012년 멜빈 버지스의 『빌리 엘리엇』 표지디자인에서 표지

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이포그래피 안에 철자 대신 권투 글러브와 발레 슈즈를 대치하였는데 이는 내용상의 의미와 일치하고 유머와 즐거움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8」2020년 허진희의 『독고슴에게 반하면』은 “한 사람을 알아 갈 기회를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소문과 편견, 첫인상의 선입견에서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에 관한 소설로 청소년이 겪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고민과 갈등, 편견과 소외 등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표지디자인을 살펴보면, 교실 안에서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독고슴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학생과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문가에 서성이는 모습을 만화처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2021년 이희영의 『보통의 노을』은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예기치 못한 일을 마주하고 흔들리는 열여덟 최노을의 이야기이다. 사회가 말하는 평범함이 무엇인지, 세상이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며, 보통과 평균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지디자인을 살펴보면, 건물 안 층간 계단 위에서 서 있는 최노을이 건너편 계단을 올라가는 여학생을 바라보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연대로 주요 이미지 패턴을 보면 「표 15」와 같다. 1970년대에는 배경 이미지의 사용 비율이 전체 표지면의 25~50% 정도로 보이며 저자의 얼굴 소묘나, 작은 일러스트를 넣는 식으로 표현하였다. 1980년대에는 배경 이미지 사용 비율이 50%로 전체 표지면의 반 정도를 이미지로 사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부터 표지에 저자 사진을 크게 넣거나 일러스트의 유채화, 소묘 표현기법 등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표지면 전체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배경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타이포그래피 표현기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는 표지면 전체에 이미지를 적용하는 사례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하단의 띠지를 적용하여 이미지 비율이 70%가 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2000년대에 71%, 2010년대에는 82%, 2020년대에는 97%에 이른다. 2000년대에는 표지디자인에 유채화 표현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확대되었다. 일러스트 유형으로 표현된 표지는 전체 32편 중 26편으로 81%를 차지하고, 성장소설 출간이 가장 왕성했던 2010년대에는 전체 62편 중 41%로 67%를, 2020년대에는 전체 42편 중 36편으로 85%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표지면의 배경 이미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일러스트 유형과 컴퓨터그래픽 유형으로 이미지 표현이 늘어나는 것은 표지디자인이 성장소설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만큼 표지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5」 연대별 표지 이미지 패턴 변화 분석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윤홍길, 「장마」, 1973	이문열, 「젊은날의 초상」, 1981	현기영, 「지상에 순가락 하나」, 1999	황석영, 「개밥 바라기 별」, 2008	권정생, 「몽실 언니」, 2012	이희영, 「보통의 노을」, 2021
일러스트 소묘기법	사진 작가사진	일러스트 펜화	일러스트 유채화	일러스트 판화	일러스트 페인팅
50% 이미지 사용	50% 이미지 사용	25% 이미지 사용	75% 이미지 사용	50% 이미지 사용	100% 이미지 사용



「그림 9」 연대별 표지 이미지 유형 구성비

#### 4-2. 색채 패턴 변화 분석

「표 16」 연대별 색채사용 분석 - 표지의 컬러

표지의 컬러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무채색	검정색	3	2	4	18	30	12
채색	회색	-	-	-	-	-	-
	흰색	-	2	3	8	10	20
유채색	난색	1	-	1	3	9	11
	한색	-	-	-	1	4	7
색	중성색	1	1	-	-	-	2
다채색	유채색+	-	-	1	2	9	1
	무채색						

「표 16」를 보면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검정색의 표제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2020년대에서 흰색의 표제가 검정색을 넘어서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2000년대부터 표제를 유채색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한색보다 난색의 사용이 비교적 많았다.

**[표 17] 연대별 색채사용 분석 - 바탕의 컬러**

바탕의 컬러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무채색	검정색	-	-	-	-	-
채색	회색	-	-	-	1	1
색	흰색	1	3	6	15	12
유채색	난색	3	2	3	6	19
채색	한색	-	-	-	4	21
색	중성색	1	-	-	2	3
다채색	유채색+무채색	1	-	-	4	6

연대별로 표지 바탕의 컬러는 흰색과 난색 사용의 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색, 중성색, 다색(유채색+무채색) 사용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표 18] 연대별 색채사용 분석 - 색상배색**

색상배색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동일배색	1	-	1	2	-	-
유사배색	1	2	-	18	22	28
보색배색	1	2	1	7	14	10
세퍼레이션	2	-	3	5	14	8
액센트배색	-	1	3	-	11	6
그라데이션	-	-	1	-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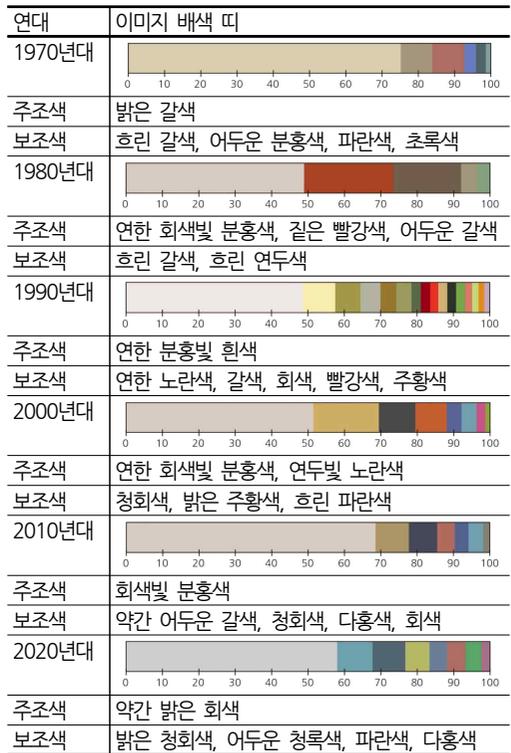
표지의 색상배색은 유사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초록과 빨강의 보색배색을 사용하거나 특정 컬러를 강조하는 액센트 배색, 배색의 중간에 분리색을 삽입하여 조화를 이루는 세퍼레이션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2010년에는 연한 톤의 보색배색과 세퍼레이션 배색이 2000년대보다 2배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표 19] 연대별 색채사용 분석 - 표지의 띠지방 컬러**

띠지방 컬러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무채색	검정색	-	-	-	1	-
채색	회색	-	-	-	-	-
색	흰색	-	-	-	2	5
유채색	난색	-	-	-	6	6
채색	한색	1	-	-	-	1
색	중성색	-	-	-	-	3

띠지는 전체적으로 20~25%정도로 사용되다가 2020년대에는 40%로 확대되었다. 띠지의 바탕컬러는 책을 홍보하는 문구가 잘 돋보이는 흰색과 눈에 잘 띄는 난색 컬러를 주로 사용하였고, 점차 한색과 중성색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띠지의 바탕컬러는 대부분 표지컬러에 맞추어 분위기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하였으나, 때에 따라서 표지컬러보다 채도가 높은 컬러를 사용하여 강조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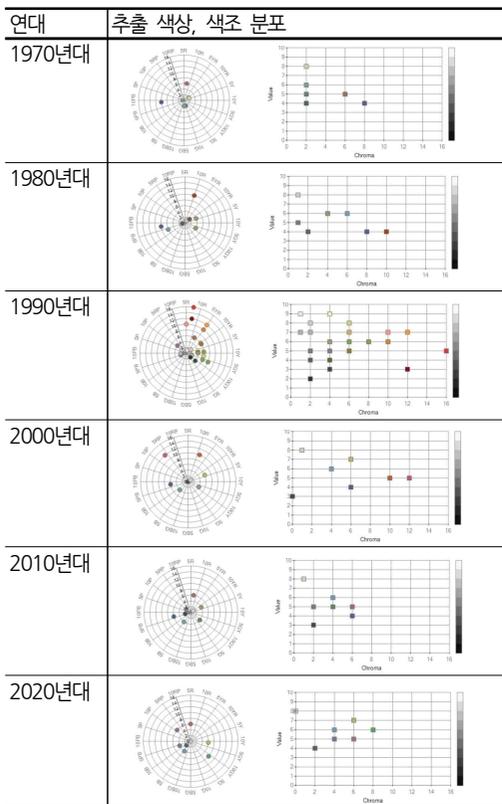
**[표 19] 연대별 KSCA 한국표준색 색채 분포**



성장소설을 연대별로 한국표준색 색채 분석을 한 결과는 「표-5」와 같다. 1970년대에는 밝은 갈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표지 바탕컬러로 사용하였고 유사한 흐린 갈색 계열을 보조색으로, 어두운 분홍색을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여 대체로 중명도 저채도의 색조분포가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에는 표지의 바탕 컬러가 연한 회색빛 분홍색과 짙은 빨강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어두운 갈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고, 중명도 중채도의 색조분포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연한 분홍빛 흰색 바탕컬러를 주조색으로 하여 빨강색(5R)에서 초록색(5G)까지 범위 안에서 중명도에서 고명도, 저채도에서 고채도의 넓은 색조분포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는 표지디자인에 색상을 가장 많이 사용한 시대로

확인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한 회색빛 분홍색과 연두빛 노란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난색과 한색이 고루 사용되었고 증명도 고채도의 색조분포를 이루며 90년대에 비해 약간 차분해진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에는 회색빛 분홍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증명도 저채도의 색조분포로 2000년대보다 침체되고 정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2020년대에는 연한 밝은 회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중성색과 한색의 색상범위 안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대보다 약간 채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연대별 KSCA 한국표준색 색조 분포



### 4-3. 타이포그래피 패턴 변화 분석

[표 21] 표지의 타이포그래피 방향

분류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가로쓰기	3	4	5	23	48	32
세로쓰기	2	1	1	-	5	1
혼합	-	-	3	9	9	20

1970년대부터 가로쓰기가 세로쓰기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표제는 세로쓰기를 하더라도 그 외의 부제나 설명하는 글은 가로쓰기를 사용하여 혼용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다

[표 22] 표제의 서체

분류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세리프	3	4	3	8	16	13
산세리프	1	1	1	1	4	16
캘리그래피	-	-	-	6	13	4
그래픽	1	-	5	17	29	20

표제 서체에서는 세리프가 전 연대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많이 사용하였고, 그래픽 서체는 컴퓨터그래픽의 서체디자인 기술이 발달하여 2000년대부터는 다른 서체보다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표제의 글줄

분류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1줄	4	3	6	21	27	27
2줄	-	2	2	6	25	19
3줄	1	-	-	3	8	6
4줄 이상	-	-	-	2	2	1

표제의 글줄에서는 1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줄의 경우 1줄로 가능한데 컨셉에 의해 2줄로 사용된 사례가 많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 3줄 이상의 글줄도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표 23] 표제의 정렬방식

분류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오른쪽정렬	1	-	-	7	8	5
가운데정렬	1	3	6	11	23	20
왼쪽정렬	1	1	2	9	18	6
양끝정렬	-	-	-	-	2	4
비대칭정렬	-	-	-	-	5	7
위쪽정렬	2	1	1	5	6	11

표제의 정렬방식에서는 가운데 정렬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왼쪽정렬이 오른쪽정렬에 비해 사용횟수가 많고, 2010년부터 양끝정렬과 비대칭정렬이 시도되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세로쓰기의 위쪽정렬도 전 연대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나타났다.

**[표 24] 표제의 강조방법**

분류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기준선 변화	1	-	-	2	1	-
크기의 변화	1	1	1	-	4	1
굵기의 변화	-	1	-	-	9	1
서체의 변화	-	-	2	9	20	13
컬러의 변화	3	2	6	17	22	28
글꼴의 변화	-	1	-	2	6	8
방향의 변화	-	-	-	2	-	2

표제 강조방법에서는 크기와 굵기의 변화보다는 서체와 컬러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0년대부터 글꼴(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표 25] 표지의 레이아웃**

분류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대칭	2	4	4	14	24	23
비대칭	3	1	5	15	32	20
방사형	-	-	-	1	3	5
사선	-	-	-	2	3	5

표지의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대칭레이아웃보다 비대칭레이아웃이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칭 레이아웃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비대칭의 시각적인 즐거움과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2000년대부터 방사형레이아웃과 사선레이아웃도 꾸준히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4-4. 분석 소결**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연대별로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의 의미 시각화 분석한 종합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 측면에서 1970년대 초반에는 작은 크기의 일러스트를 표지에 활용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일러스트 중 유채화 기법, 컴퓨터그래픽 중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을 하는 등의 시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로 표지면 전체를 이미지로 사용하고, 일러스트와 컴퓨터그래픽 유형의 이미지 표현도 상당수 확대되어 친근하고 감성적인 일러스트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 측면에서 표제의 컬러는 검정색이 무난하게 사용되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흰색과 난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지 바탕의 컬러는 흰색과 난색이 전 연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로 한색과 중성색의 사용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표 26] 시각적 요소 종합**

연대	표현방식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1970년대	작은 부분에 소묘와 펜화 이미지 사용. 전체표지의 25%, 50% 이미지 사용.	주조색은 밝은 갈색, 보조색으로 갈색, 분홍색, 파란색 사용. 증명도 저채도의 색조분포	표제는 가로쓰기와 세리프체, 1줄, 위쪽정렬 많이 사용. 컬러의 변화로 표제강조 비대칭레이아웃
1980년대	표지에 작가사진 사용 소묘, 유채화 기법 사용. 전체표지의 50% 이미지 사용.	주조색은 연한 회색빛 분홍색 빨강색, 갈색 사용. 증명도 중채도의 색조분포	표제는 가로쓰기, 세리프체 사용. 2줄 사용 시작함. 가운데정렬, 대칭레이아웃
1990년대	컴퓨터그래픽 타이포그래피 기법 사용. 전체표지의 100% 이미지 사용 시작함.	주조색은 분홍빛 흰색. 증명도에서 고명도, 저채도에서 고채도의 넓은 색조분포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혼합 사용. 세리프체, 글꼴은 1줄 가운데정렬 많이 사용.
2000년대	풍경사진과 유채화일러스트 이미지 사용 컴퓨터그래픽 합성, 호기기법 사용, 띠지사용	표제와 바탕컬러 한색사용이 많아짐. 증명도 고채도의 색조분포	캘리그래피 서체 사용하고 3~4줄 글꼴 오른쪽정렬, 방사형, 사선 레이아웃 사용시작함.
2010년대	전체표지의 100% 이미지 최다 사용. 인물사진과 유채화기법, 그래픽 효과, 콜라주기법 최대로 사용함.	표제와 바탕 컬러 난색 많이 사용. 회색빛분홍색을 주조색으로 갈색, 청회색, 다홍색 보조색 사용. 증명도 저채도 색조분포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세리프체, 1줄 가장 많이 사용. 서체의 변화와 컬러의 변화로 표제를 강조, 비대칭레이아웃 많이 사용
2020년대	유채화 표현기법과 띠지 최다 사용 바다풍경 사진 사용 전체표지의 70% 이미지 최다 사용.	흰색과 난색의 표제 컬러와 한색의 바탕컬러 사용, 한색과 중성색의 유사배색 최다 사용.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혼합사용 가장 많음. 그래픽체, 2줄, 위쪽정렬, 대칭레이아웃 많이 사용

타이포그래피 측면에서 쓰기방향은 가로쓰기가 전연대를 걸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체의 타이포그래피를 세로쓰기만으로 구성했을 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제 글꼴은 전 연대에서

걸 1행을 사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0년대부터 표제를 내려쓰기를 하여 글줄을 2~3줄로 만드는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 5. 의미체계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총 166권의 성장소설의 연대별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1970년대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분석**

키워드 : '아버지', '비극', '분단', '토착적인 한(恨)'		
제목의 문체 비율	구체성(20%)	추상성(80%)
이미지의 구체성/추상성	구체성(0%)	추상성(100%)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	5편 중 3편(60%) 매칭 인물 표현(1), 풍경 표현(1), 상징 표현(1), 기타(2)	
키워드의 이미지 시각화	아버지 김원일의 '어둠의 혼'에서 어둠속에 있는 여자와 아이로 아버지의 부재 표현	
	분단과 비극 김원일의 '노을'에서 멎든 엄마와 노을과 소의 피를 유체화와 보색대비로 표현함	
매칭	5편 중 2편(40%)	

1970년대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은 총 5편으로 제목과 이미지의 추상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의 이미지시각화는 인물과 풍경, 상징 시각요소를 일러스트로 표현하였고, 5편 중 3편이 매칭되었다.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추출된 키워드를 이미지 시각화한 부분에서는 5편 중 2편의 매칭을 보였는데, 주로 일러스트와 색채로 키워드를 표현하였다.

**[표 29] 1980년대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분석**

키워드 : '삶의 의미', '방황', '청춘', '사랑'		
제목의 문체 비율	구체성(40%)	추상성(60%)
이미지의 구체성/추상성	구체성(60%)	추상성(40%)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	5편 중 4편(80%) 매칭 인물 표현(1), 풍경 표현(2), 식물 표현(1), 분위기 및 상황표현(1)	
키워드의 이미지 시각화	청춘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에서 작가의 젊은시절 사진이 '청춘'을 표현함.	
	사랑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꽃이 든 화병과 화려한 일러스트가 '사랑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음.	
매칭	5편 중 2편(40%)	

1980년대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은 총 5편으로 제목

과 이미지에 구체성 표현이 나타났고, 제목을 이미지 시각화는 일러스트와 사진으로 인물이나 풍경, 식물, 분위기 등을 표현하였는데, 5편 중 4편이 매칭되었다.

**[표 30] 1990년대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분석**

키워드 : '폭력', '지배', '부조리함', '희상'		
제목의 문체 비율	구체성(33%)	추상성(67%)
이미지의 구체성/추상성	구체성(44%)	추상성(56%)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	9편 중 4편(45%) 매칭 인물 표현(2), 풍경 표현(1), 상징 표현(1)	
키워드의 이미지 시각화	폭력, 지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의 행태를 소묘기법으로 학급안에서의 폭력과지배를 섬세하게 표현함.	
	부조리함 허미 리의 '영무새 죽이기'에서 고발, 폭로하는 듯한 전면의 타이포그래피적 표현과 소녀를 소묘로 표현하였다.	
	희상 현기영의 '지상의 순가락 하나'에서 우측하단에 위치한 '발'은 성적 호기심이 가득했던 유년시절을 상징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매칭	9편 중 3편(60%)	

1990년대에서는 제목과 이미지의 추상적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났고 전 연대에서 키워드 이미지시각화 매칭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 2000년대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분석**

키워드 : '여성', '꿈', '경험', '불안'		
제목의 문체 비율	구체성(66%)	추상성(34%)
이미지의 구체성/추상성	구체성(60%)	추상성(40%)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	32편 중 20편(63%) 매칭 인물 표현(청소년(16), 성인(1), 아버지(1)), 풍경 표현(7), 주택 표현(1), 동물+사람(1) 신체부위 표현(1), 스포츠 동작표현(3), 기타(1)	
키워드의 이미지 시각화	여성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1931년 유년시절의 소녀를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경험, 불안 황석영, '개밥버라기 별'에서 어두운 밤의 거리에서 별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소녀의 모습을 일러스트와 보색배색, 캘리그라피 서체로 표현하였다. 시모무라 고진, '지로 이야기'에서 1920년~30년대를 배경으로 유년시절의 경험을 유체화, 캘리그라피로 표현하였다.	
	꿈, 경험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에서 달이 밝은 밤에 피라미드에 다다른 여행자를 신비로운 분위기의 일러스트, 그래픽서체로 표현하였다.	
매칭	32편 중 8편(25%)	

2000년대에서는 제목과 이미지가 구체성이 더 뚜렷

하게 나타났고, 이미지의 인물 표현과 풍경, 주택, 동물, 스포츠 동작표현 등 시각적 요소가 다양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2010년대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분석**

키워드 : '가족', '상차', '희망' 관계		
제목의 문체 비율	구체성(70%)	추상성(30%)
이미지의 구체성/추상성	구체성(82%)	추상성(18%)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	62편 중 49편(80%) 매칭 인물 표현(청소년(22), 성인(1), 여성(7), 남성(3), 사람들(4), 가족(3)), 풍경 표현(6), 식물 표현(4), 신체부위 표현(2), 상징 표현(4), 스포츠 표현(1), 기타(5)	
키워드의 이미지 시각화	가족, 상차	권정생의 「몽실언니」에서 동생을 업고 있는 소녀를 동양적 분위기의 판화로, 세퍼레이션 배색으로 표현하였다. 심윤경, 「나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6살 터울의 남매 사진을 추억의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희망	김중미, 「모두 잠언」에서 농촌공동체의 서로 연대하고 환영하는 따뜻한 모습을 콜라주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관계	황영미의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에서 학교운동장 벤치에 홀로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표제는 채팅창의 아이디 컨셉으로 나타내고 있다.
매칭	62편 중 18편(30%)	

2010년대에서는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가 80%로 매칭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2] 2020년대 키워드와 시각요소의 연관성 분석**

키워드 : '경쟁', '용기', '선택', '평등'		
제목의 문체 비율	구체성(73%)	추상성(27%)
이미지의 구체성/추상성	구체성(73%)	추상성(27%)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	53편 중 27편(51%) 매칭 인물 표현(청소년(19), 가족(2), 여성(7), 남성(4)), 동물 표현(2), 풍경 표현(9), 자연 표현(2), 신체부위 표현(2), 상징 표현(1), 스포츠 표현(4), 주택(1)	
키워드의 이미지 시각화	경쟁	권석의 「스피드」에서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유채화로 사선레이아웃으로 속도감있게 경쟁을 표현하였다.
	평등	박기복의 「수상한 학교, 평등을 팝니다」에서 교실안에서 책상에 엎드려 저울을 들고있는 소녀를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빨간색으로 표제를 강조하였다.
매칭	53편 중 16편(30%)	

## 6. 결론

본 연구는 첫째,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인에서의 연대별 키워드와 제목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성장소설의 표지디자인의 의미시각화를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셋째, 성장소설의 표지의 의미와 시각요소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했다.

분석 결과, 연대별 키워드와 제목에 대한 의미에서는 표제의 품사 구성이 점차적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할 점은 1970년대에는 '명사'만으로 구성되었다면, 2020년대에는 '명사'없이 '형용사'로, '부사'로, '동사'만으로 구성된 제목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는 제목을 표현하는 품사의 제약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목의 품사구성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단순한 구조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변화되었고, 이는 제목의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품사의 다양해지고,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면서 표지의 이미지도 구체적인 시각요소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목의 구체적 표현은 표지 시각 요소의 구체적 의미전달이 용이해지고 독자들이 책을 구매할 때 내용의 의미전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연대별 의미 시각화 분석을 살펴보면, 이미지 측면에서 1970년대에는 제한되고 함축적인 작은 일러스트를 사용하였고, 1980년대에는 일러스트와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유형을 시도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표지면을 100% 배경이미지로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고 일러스트의 유채화/페인팅기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색채 측면에서는 표지바탕 컬러로 흰색과 난색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유사배색의 중명도, 저채도의 색조분포를, 1980년대에는 보색배색의 중명도, 중채도의 색조분포를 이루고, 1990년대에는 세퍼레이션이나 포인트배색을 주로 사용하여 난색과 중성색의 범위에서 중명도에 넓은 범위의 색상분포가 확인되었다. 2000년대에는 유사배색으로 중명도, 고채도 색조분포를, 2010년대에는 유사배색의 중명도, 저채도의 색조분포로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2020년대에는 중명도, 저채도의 양상을 보이고 중성색과 한색을 유사배색으로 사용하여 차갑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타이포그래피 측면에서 표제의 가로쓰기가 전 연대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세로쓰기도 가로쓰기와 혼합하여 사용되었다. 글줄도 1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부터 3줄 이상의 글줄이 계속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렬방식은 중앙정렬이 많이 사용되었

고, 그 다음으로 왼쪽 정렬, 위쪽 정렬, 오른쪽 정렬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미체계와 시각요소의 연관성에서는 제목과 이미지의 구체성과 추상성, 제목의 이미지 시각화와 키워드의 이미지 시각화 등을 다루었다.

1970년대에 제목과 이미지의 추상성표현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 구체성 표현이 점점 늘어나 2010년대에는 70~82%로, 2020년대에는 70%로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와 90년대까지는 이미지 시각화의 요소가 인물사진과 풍경, 상징적 표현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 이미지에 인물 표현이 세분화되었다. 인물 중에서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여성, 사람들, 남성,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에 대한 풍경과 배경을 묘사하는 이미지, 스포츠 동작 표현, 식물 표현, 동물과 사람 표현 등 제목의 키워드의 구체성에 따라 시각적 요소가 반영되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반에는 제목의 추상성표현이 매우 높아 표지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각요소가 제한적이고, 함축성을 띄었다면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기법과 다양해지고 기술과 실력이 발전함에 따라 제목의 추상성 표현을 이미지 시각화하는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대별로 내용상에서 반복적으로 추출된 키워드를 이미지 시각화한 부분에서는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비교적 높은 매칭을 이루다 2000년대로 갈수록 매칭이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성장소설이 각 5편, 90년대 9편, 2000년대에 32편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표지디자인에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의 요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각 성장소설의 컨셉을 표현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의 제목의 의미체계에 대해 분석해보았고, 성장소설의 표지를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 즉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등의 분석하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목과 의미 시각적 요소의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총 166편의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을 다루었는데, 양적으로 방대하다보니 연대별 특성에 집중하느라 성장소설 각각의 컨셉적인 부분이나 타이포그래피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짚어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참고문헌

1. 김정현, 「국내외 북커버 디자인의 시각적 특성 비교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5, 제15호
2. 노옥영,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포스터에 나타난 의미 패턴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1, 제6호
3. 이미정, 베스트셀러 소설 제목의 타이포그래피 조형성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2018, 제53호
4. 송민정·최은유, 분야별 책표지디자인의 시각적 요소 분석을 통한 시각적 특징,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3, 제19호
5. 권정현, 『내용과 제목의 구체성과 추상성이 설명적 교재처리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2001.6
6. 백경아,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모티브 분석, 제주대학교, 2015.12
7. 우동식, 『총론, 성장소설의 역사』, 학교도서관저널, 2010년 3월 창간특대호
8. www.kyobobook.co.k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9. www.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